

신혜원의 가정법 산책 >> 글보기

캡틴의 파라다이스 (Captain's Paradise)

lawhwsin on June 22, 2011

이혼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집을 나가 댄 살림을 차려서 별거한지 몇 달이 됐으니 이제 이혼 신청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이다. 참으로 간단한 질문인 듯하나, 이 질문은 이혼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법적 개념을 가진 '별거'라는 단어를 담고 있어서, Yes 혹은 No로 답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별거일'이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은 혼인 기간 동안에 취득한 수입 및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규정하며, 별거 이후에 취득한 수입 및 재산은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별거 날짜가 정확히 언제냐 라는 것을 책정하는 것은 이혼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별거 날짜 하나를 놓고 밀고 당기는 재판이 수일에 걸쳐 하는 예도 있다.

법이 말하는 별거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나는 의뢰인에게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실제 거주 이혼 판례법 얘기를 들려준다. 리처드는 의사로서 15년을 넘게 산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둘 있었다. 그는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 댄 살림을 차리고 집을 떠났다. 아내인 바바라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4년이 넘도록 남편을 그의 젊은 여자친구와 '공유'하는 생활을 한다.

그 4년이란 기간 동안, 리처드는 의사로서의 사회적 입장과 체면 때문에, 또 주변의 따가운 눈총과 입방아가 두려워 이혼만큼은 과감히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이쪽저쪽을 넘나들며 양쪽을 다 껴차고(?) 사는 생활을 지속했다. 이미 젊은 연인이 있었던지라,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바바라와 성관계가 4년 내내 없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바바라가 대장금의 장금이 정도의 요리 솜씨가 있었는지, 리처드는 저녁 식사만큼은 바바라 집에 와서 먹고, 잠은 연인이 있는 아파트에서 자곤 했다. 리처드는 바바라와 애들을 데리고 휴일이면 여행도 다녔고, 생일과 결혼기념일에는 "I love you"라는 카드와 함께 부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동창회, 의사 협회, 학술회에 따른 각종 연회 자리에는 반드시 바바라를 동반해 동료 사이에서 그의 품격을 지키느라 애썼다.

여기까지는 이 케이스가 아닌 다른 케이스에서도 낯설지 않게 듣는 얘기인데, 리처드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 할 특이한 점은, 리처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빨랫감을 바바라에게 가져왔고, 바바라는 이를 군소리 없이 빨아주고 다림질까지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러기를 4년, 버티다 버티다, 리처드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게 된다. 이에, 이혼 소송에서 별거 일을 명시해야 하는데, 리처드는 당연히 그가 집을 떠나 연인과 댄 살림을 차린 4년전

그 때, 바바라는 리처드가 이혼 소장을 접수한 그 날이 별거일이라 주장했고, 이들의 별거일은 법원을 통한 재판을 통해 결정되기에 이른다. 자, 여기서 잠깐, 왜 이부부가 별거 날짜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지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자면, 별거일이 언제냐에 따라 리처드가 의사로서 취득한 지난 4 년간의 모든 수입과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리처드 개인 사유 재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을 통한 별거일 심리 공판에서 이 두 사람은 위에 적힌 그 이상으로 지난 4 년간의 사생활, 생활 패턴, 생활 습관을 '다 까발려야했다.' 이에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 조항에 근거하여, 별거일이란 "Complete and final break in the marital relationship"이 발생하여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도가 없거나 혹은 그에 대한 가능성이 결여됨을 행동으로 나타낸 시기를 말하며, 단순히 집을 떠나 연인과 동거하는 그 자체가 별거시기를 결정짓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고 판단, 리처드의 경우, 그가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시기가 별거일이라 판결 내렸다. 따라서, 고진감래라 했나, 바바라는 리처드가 4 년간 열심히 만든 재산의 반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받게 되었다.

리처드, 바바라의 거주 이혼 판례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담고 있다. "리처드는 '캡틴의 파라다이스 (Captain's Paradise)'와 같은 생활을 즐겼으며, 두 여자가 각각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를 누렸다. 바바라는 아내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리처드가 의사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내조했다. 리처드야말로 일부다처제의 생활 방식을 즐겼으니, 그에 대한 재정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부부 맞벌이가 흔한 요즈음, 내 빨래를 누가했더라(?)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건지, 바바라는 우리의 조상, 이조시대의 여인이 아닌, 1970 년대에 미국 땅에 실존한 파란 눈의 여성이다.

*위의 기사는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 판례를 필자가 본 기사와 지면에 맞게 각색한 것이며, 미국 내 거주 한인 이혼 케이스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끝)